

## ‘정보의 바다’에서 만나는 어린이책 길라잡이

단체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많아 ...

어린이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사이트는 드문 형편

아이들에게 책을 사주고 싶어도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권위있는 단체는 물론이고 개인이 개설한 사이트에서 다양한 독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사이트는 독자적인 선정기준으로 고른 좋은 책을 소개하면서 독서법까지 알려주고 있어 학부모와 교사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사주고 싶는데 어떤 책이 좋을지? 아마도 이는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들어가보는 것은 어떨까? 인터넷에서 아이들에게 권할 만한 좋은 책을 찾기로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름의 분명한 잣대로 좋은 어린이책을 추천하는 사이트가 제법 많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이트가 <어린이 도서 연구회> (www.childbook.org)의 홈페이지이다. 시민운동단체인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 제공하는 이 사이트는 ‘새로 나온 책’에서 매달 새로 출간된 좋은 어린이 책을 추천하고 있고, ‘어린이권장도서 목록’을 통해 유아와 각 학년별로 나눠 읽어야 할 책들을 권하고 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들이 읽어야 할 어린이책도 소개하는 한편, 게시판을 통해 책 고르기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도 해결해 주고 있다. 어린이책에 대한 가장 전문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 개인이 운영하는 알찬 사이트들도 많아

한편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들도 있다. <에기똥풀의 집>(http://zzagn.net/pbooks)과 <오른발 왼발>(www.childweb.co.kr), <책 읽어주는 선생님>(www.mymeipe.kr) 등이 대표적이다. 이 사이트들은 저마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어 부모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에기똥풀의 집>은 1999년 1월 26일에 문을 열었다. 하루 방문객은 대략 7백명에서 1천명을 헤아린다. “어린이들에게 정말 읽어 주고 싶은 좋은 그림책을 소개”하기 위해 주부 허은순씨가 만들었다. ‘창작동화’ ‘그림책 이야기’ ‘그림책 다시 보기’ 등으로 구성된 이 사이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방은 ‘추천 그림책’. 허은순씨가 가장 신경써서 운영하고 있는 방이기도 하다. 그는 이 난에 소개되는 책을 고를 때 신중을 기한다고 밝혔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정기준은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점이다.

“요즘 어린이 책이 잘 팔린다고 너도나도 출판에 뛰어들기 때문에, 단지 어린이를 새로운 소비자 계층으로 인식하고 책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좀더 나은 책들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그는 최근에 괜찮은 책을 출간한 출판사라도 이전의 책이 좋지 못했다면 제외시킨다. 그리고 번역물만 내고 있는 출판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의 이런 ‘까다로운 안목’ 덕택에 “에기똥풀의 집에서 추천한 책은 확실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

요즘 그는 ‘작은 도서관’이란 코너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코너는 좋은 그림책을 한 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게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만들게 됐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림책을 아이에게 사주기 힘든 부모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그림책을 책꽂이에 꽂아만 두기보다는 이웃집 사람들과 나눠본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죠.”

이 코너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빌려주고 싶은 책을 몇권씩 묶어 게시판에 올리면 그 책들을 빌려보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순서대로 빌려보면 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책만 시험삼아 운영했지만 의외로 반응이 좋아 곧 어른책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에기똥풀의 집>은 어린이 전용 사이트인 <아이조아>와 함께 오는 5월 25일까지 ‘제1회 전자그림책 콘테스트’도 개최한다.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 몸담았던 오진원씨가 운영하는 <오른발 왼발>도 주목받는 사이트다. 1998년 8월부터 문을 연 이 사이트는 ‘동화비평’ ‘이 책은 꼭 읽히시다’ ‘베스트셀러 분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사이트의 특징은 단순히 좋은 책만 추천하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문학 전반에 걸친 운영자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책에 대한 고정관념’과 같은 기획란이 이를 잘 보여준다. 기존의 어린이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바로잡아주며, 어린이책의 발전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부모들이 어린이책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일례로 <이솝우화> 같은 책은 어린이들이 보기에 적당한 책이 아닙니다. 처세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이 책은 오히려 어른들에게 적합한 책이죠. 아마 길이가 짧고 우화형식이라서 어린이들이 읽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진원씨는 곧 <클릭 어린이 세상>이라는 새로운 사이트를 연다. '하나로 통신'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는 이 사이트는 사용자들에게 동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우리의 전래동화를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되는 이 사이트는 종이접기, 색칠하기 등의 코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백향씨가 운영하는 <책 읽어주는 선생님>도 눈여겨 볼 사이트다. 그는 '동화 읽는 교사 모임'에서 활동 하던 중, 그동안 축적한 자료들을 좀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이 사이트를 열었다. 우리나라 동화와 외국동화로 나눠 책을 추천하고 동화비평도 쓰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창의적 독서지도'와 같이 교육자의 경험에서 나온 '아이들을 위한 독서지도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게시판에는 '독서지도법'에 대한 부모들의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다.

### 아기자기하게 꾸민 가족 홈페이지

이밖에도 <민지와 그림책 이야기>(http://zzagn.net/maya/mhome), <The cozy corner>(http://zzagn.net/cozy)와 같은 가족홈페이지에서도 좋은 그림책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홈페이지는 주로 5세 미만의 유아들에게 적당한 그림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육아일기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민지와 그림책 이야기>는 주부 조선희씨가 만든 사이트. 작년 9월 17일에 문을 열었다. '그림책 이야기' '작가 이야기' '그림책 묶음' 등으로 구성된 이 사이트는 '글 없는 그림책' '흑백 그림책' '오리, 거위, 닭' 등의 주제에 관한 그림책들을 따로 묶어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그림책 어루만지기'에서 동화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비판하기도 한다.

<The cozy corner>는 미국에 있는 주부 서은희씨가 운영하는 사이트. 영어 그림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림책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주원이랑 주우가 들려주는 이야기>(http://myhomethru.net/~lks38) <최훈의 철학, 미술관, 그림책 이야기>(http://logic.snu.ac.kr/choih)도 한번쯤 가볼 만한 사이트다.

그리고 <초방>(www.chobang.com), <푸른하늘>(www.skyblue.co.kr) 같은 인터넷 어린이 전문 서점에서도 좋은 책을 찾아볼 수 있다.

### 아이들이 직접 즐길 만한 사이트는 부족해

그러나 앞에서 말한 사이트들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직까지 인터넷에는 아이들이 가볼 만한 어린이 책 사이트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영어공부를 목적으로 영어동화를 볼 수 있는 곳은 있지만, 창작동화 그림책을 볼 수 있는 사이트나 한글로 된 전자 그림책 사이트는 거의 없는 형편. 이는 <애기똥풀의 집>의 허은순씨도 아쉬워하는 점이다.

"외국에는 유명한 그림책을 캐릭터화하거나 주인공으로 한 팬클럽 형식의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고전 그림책 <피터 래빗의 사이트>(www.peterrabbit.co.uk/templates/indexstart.cfm)는 정말 샘나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아마추어들이 만든 그림책을 올려놓은 곳도 정말 많죠. 하지만



인터넷에는 학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좋은 어린이책을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많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즐겁게 볼 수 있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는 드물다. 사진은 <오른발 왼발>을 운영하고 있는 오진원씨

국내에는 이런 사이트들이 드문 편입니다."

<책 읽어주는 선생님>의 강백향씨도 같은 생각이다.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지만, 대부분 게임과 연예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 이는 아이들에게 재미와 유익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제2회 한국인터넷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한 <옛날 이야기>(www.idream.co.kr)는 단연 눈길을 끄는 사이트다. 비록 어린이책을 소개하는 사이트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우리의 전래동화를 리얼플레이어로 동영상과 함께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세자매가 만들었다. 김성숙씨(34)는 구연동화, 김현숙씨(32)는 홈페이지 제작, 김은희씨(30)는 일러스트레이션을 각각 맡았다. 이 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엄마가 들려주는 듯한 구연동화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즐겁게 볼 수 있다. 또한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를 클릭하면 아이들이 주인공에게 직접 편지를 쓸 수 있게 한 점 등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배려한 점이 눈에 띈다.

"동화를 소개하는 대부분의 국내 사이트들은 글자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힘들죠. 그리고 인터넷에 외국 동화는 많이 있는데 전래동화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앞으로 <옛날 이야기>는 어린이들의 놀이와 색칠공부기능, 영어공부기능 등 다양한 방을 만들어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다갈 수 있는 사이트로 만들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주 동화읽는 어른 모임>(http://myhome.com/~kjlongwh), <웬진 부꾸>(www.bookoo.co.kr), <이달의 책>(www.bol.co.kr) 등에서도 좋은 어린이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최갑수 기자